



## II

# 2017년 주요 범죄유형별 특성

## 1. 살인

### 1) 범죄유형

- 2017년에는 총 858건의 살인범죄<sup>18</sup>가 발생하였다. 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766건으로 89.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존속살해 48건(5.6%), 자살교사/방조 34건(4.0%), 영아살해 9건(1.0%), 촉탁살인 1건(0.1%)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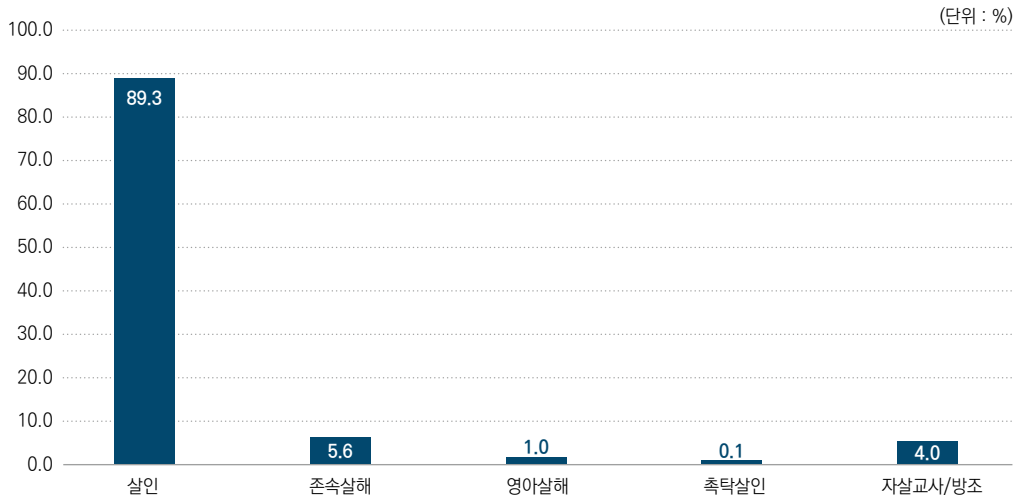


그림 24 주요 살인범죄유형별 구성비

18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(기수), 살인(미수, 예비, 음모, 방조) 범죄 포함

## 2) 범죄발생시간

-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<sup>19</sup>는 밤(20:00~03:59, 37.4%)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오후(12:00~17:59, 24.7%), 오전(09:00~11:59, 12.4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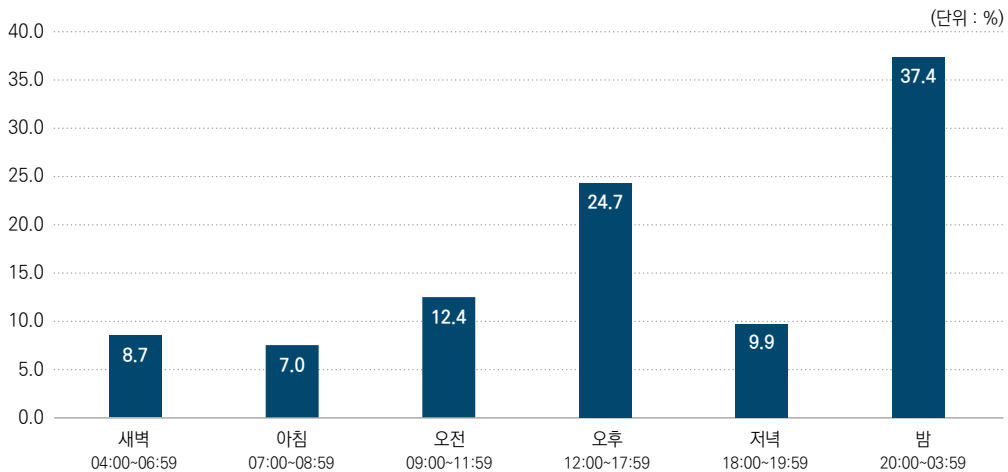


그림 25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## 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살인범죄 피해자의 59.0%는 남성이었으며, 41.0%는 여성이었다.
- 살인범죄 피해자의 66.4%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.
- 남성피해자는 41세~50세, 51세~60세의 연령층에서 각각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, 여성피해자는 51세~60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이 41세~50세 순이었다. 15세 이하 피해자가 발생한 건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건으로 동일하였으나, 12세 이하 여자아동의 피해비율이 6.0%로 남자아동(3.3%)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.

19 발생시간대별 비율은 발생시간대가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, 이하 작성되는 각 범죄별 항목별 표, 그림에 표시된 비율은 별도로 언급된 경우 외에는 항목별 미상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



표 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별		계
	남성	여성	
6세 이하	14(2.9)	14(4.2)	28(3.4)
7세-12세	2(0.4)	6(1.8)	8(1.0)
13세-15세	4(0.8)	0(0.0)	4(0.5)
16세-20세	11(2.3)	9(2.7)	20(2.5)
21세-30세	60(12.5)	27(8.1)	87(10.7)
31세-40세	79(16.5)	47(14.1)	126(15.5)
41세-50세	115(24.0)	71(21.3)	186(22.9)
51세-60세	115(24.0)	93(27.9)	208(25.6)
61세 이상	80(16.7)	66(19.8)	146(18.0)
계	480(100.0)	333(100.0)	813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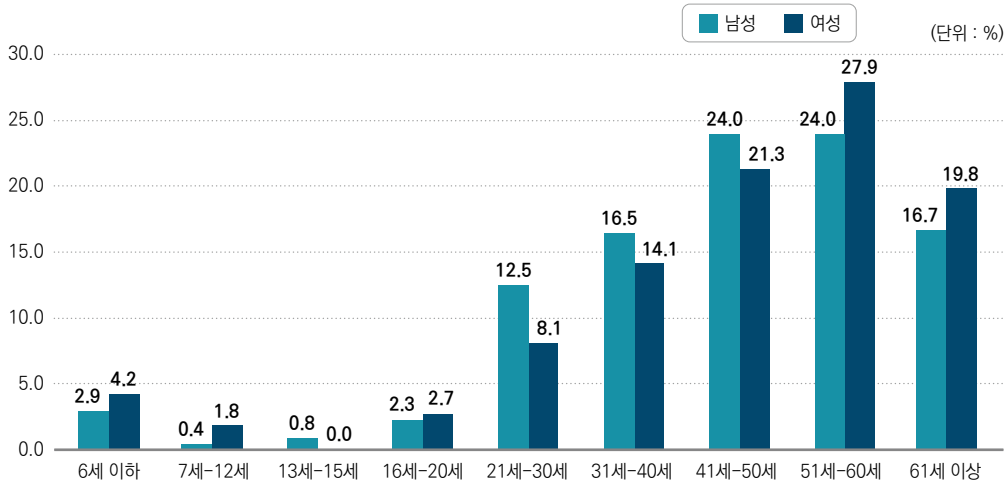


그림 26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## 4) 신체피해정도

-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82건으로 전체의 34.2%였다. 살인범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34.2%의 비율을 보인 것은 살인범죄에 미수, 예비, 음모, 방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.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293건(35.5%),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50건(30.3%)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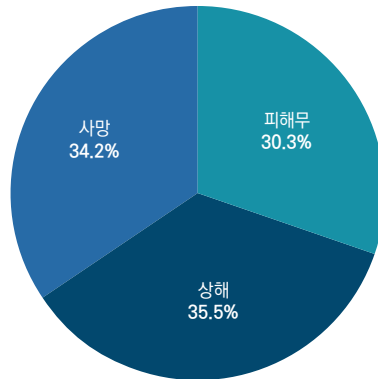


그림 27 살인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## 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살인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전체의 27.9%가 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. 타인 외의 관계에서는,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27.6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7.2%), 애인(10.4%), 친구/직장동료(9.7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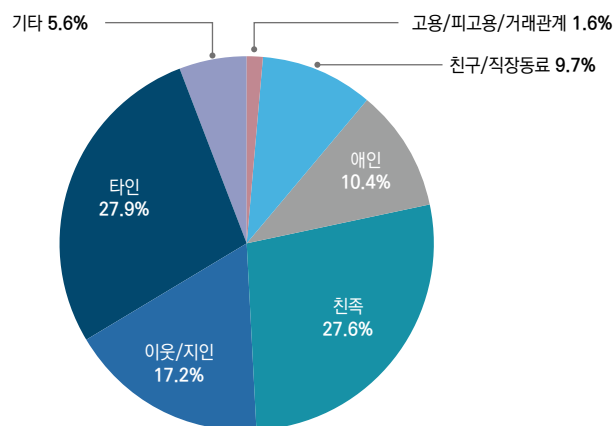


그림 28 살인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

## 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85.0%가 남성이었으며, 여성은 15.0%를 차지하고 있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 연령층이 26.6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, 31세~40세의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는 41세~50세 연령층이 23.0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31세~40세, 51~60세의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45.3%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(34.0%)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**표 25 살인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**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1(1.4)	7(5.0)	18(1.9)
19세~30세	126(16.0)	25(18.0)	151(16.3)
31세~40세	130(16.5)	31(22.3)	161(17.4)
41세~50세	190(24.2)	32(23.0)	222(24.0)
51세~60세	209(26.6)	27(19.4)	236(25.5)
61세 이상	120(15.3)	17(12.2)	137(14.8)
계	786(100.0)	139(100.0)	92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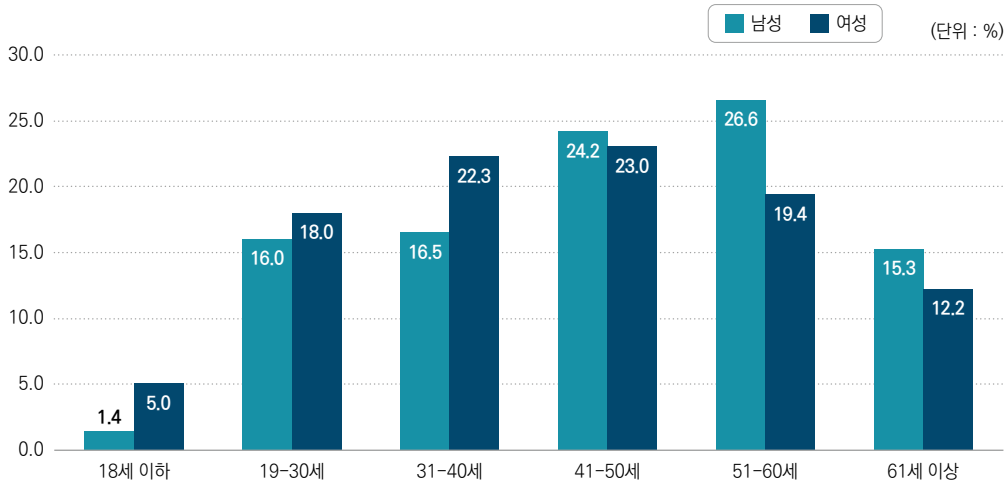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9 살인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 7) 범죄자의 전과

-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51.8%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6.7%이며,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21.5%로 나타났다.

## 8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47.3%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. 43.4%는 주취상태였으며, 9.3%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7.1%로 남성범죄자(8.0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, 남성범죄자 중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7.0%로 여성범죄자(21.6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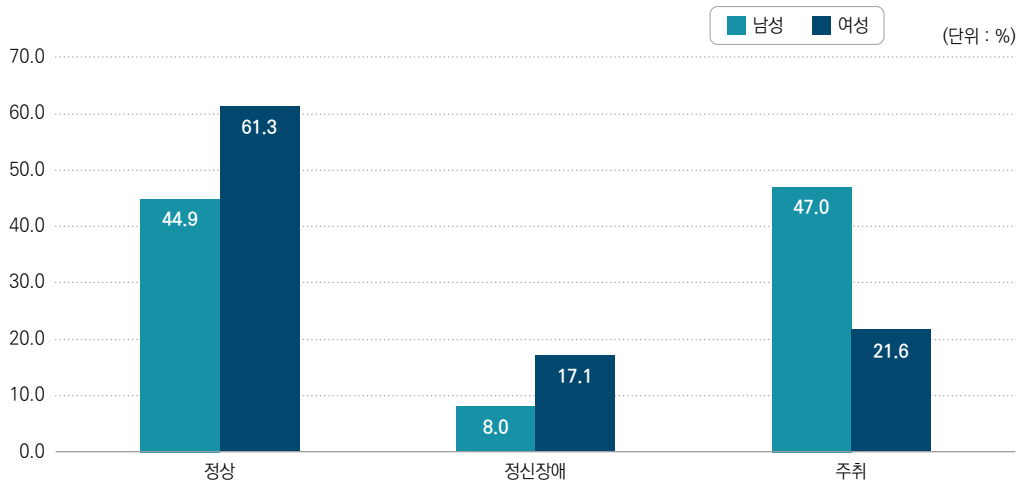


그림 30 살인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

## 2. 강도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17년 총 990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중 46.2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53.1%가 저녁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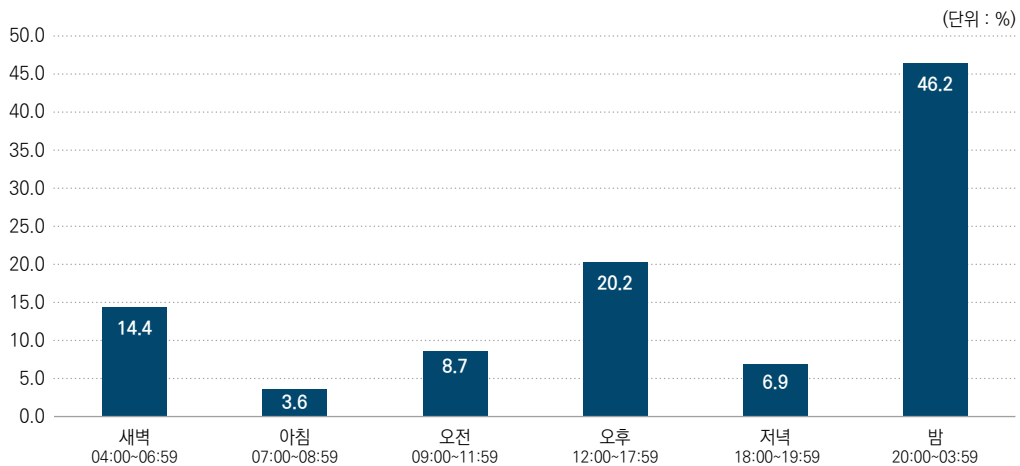


그림 31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## 2) 범죄발생장소

- 강도범죄는 기타를 제외하면,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6.5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 17.2%, 상점 12.5%, 숙박업소/목욕탕 7.2%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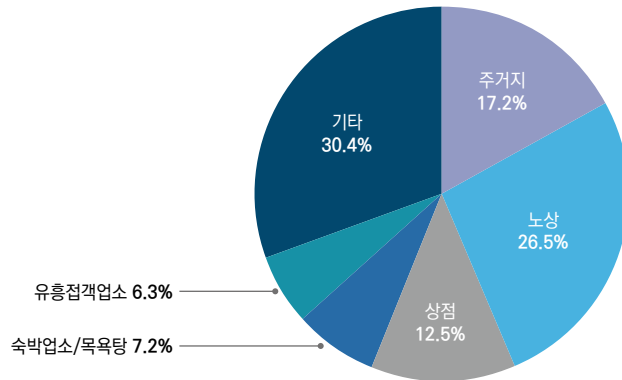


그림 32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## 3) 범행수법

- 범행수법별로는 침입강도가 42.7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기타 40.7%, 노상강도 10.9%의 순이었다. 마취강도는 2.4%, 차량이용강도, 강도강간, 인질강도는 각각 0.8%, 0.6%, 0.4%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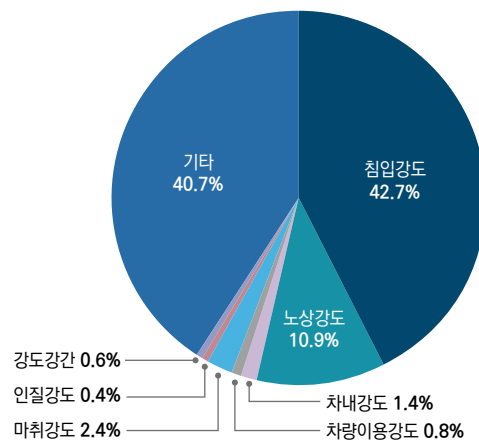


그림 33 강도범죄의 범행수법





#### 4) 재산피해정도

- 강도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액수는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38.9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100만원 초과~1,000만원 이하가 19.2%,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15.4%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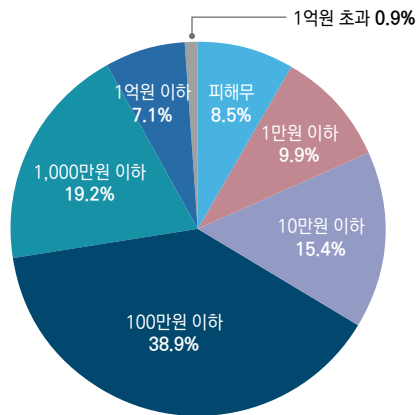


그림 34 강도범죄의 재산피해정도

#### 5) 신체피해정도

- 강도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정도는 피해가 없는 경우가 63.5%였고,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가 34.2%인 것으로 나타났다. 강도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2건으로 2.3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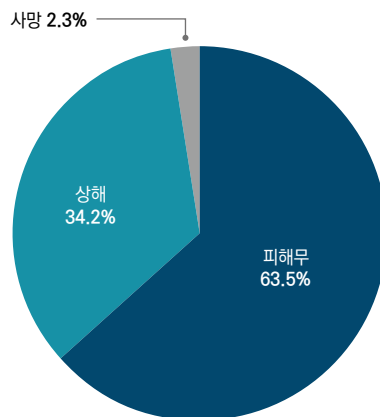


그림 35 강도범죄의 신체피해정도

## 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강도범죄자의 90.3%가 남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-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, 19세~30세가 28.2%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31세~40세(23.0%)였다. 강도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16.6%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남성 강도범죄자는 19세~30세의 비율이 29.3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31세~40세(23.7%), 41세~50세(17.9%) 등으로 나타났다.
- 여성 강도범죄자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8.0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19세~30세(17.6%), 31세~40세(16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여성 강도범죄자는 남성 강도범죄자에 비해 18세 이하, 61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고, 19세~30세, 31세~40세, 41세~50세, 51세~60세 연령층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.

표 26 강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90(14.3)	54(38.0)	244(16.6)
19세~30세	389(29.3)	25(17.6)	414(28.2)
31세~40세	314(23.7)	24(16.9)	338(23.0)
41세~50세	238(17.9)	17(12.0)	255(17.4)
51세~60세	149(11.2)	14(9.9)	163(11.1)
61세 이상	47(3.5)	8(5.6)	55(3.7)
계	1,327(100.0)	142(100.0)	1,469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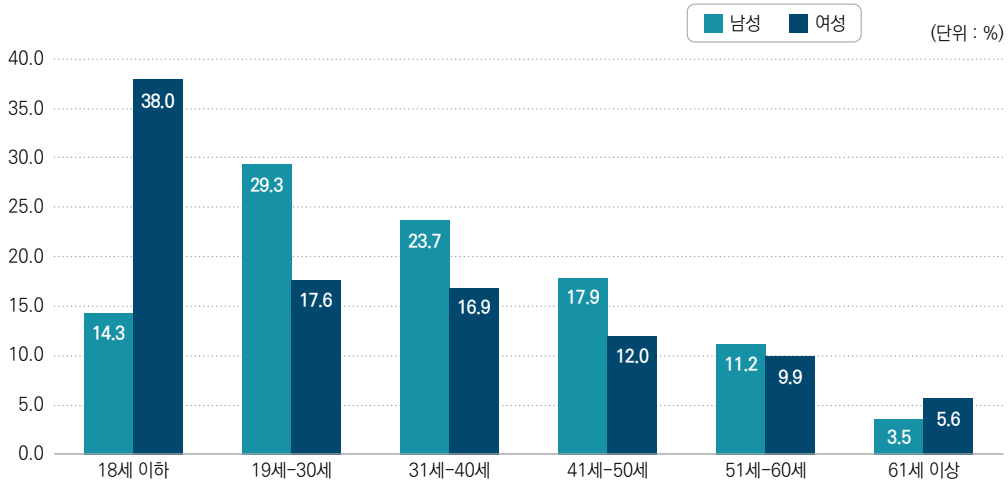


그림 36 강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 7) 범행동기

-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우발적 동기가 20.0%로 가장 많았고, 생활비 마련(16.5%), 유혹/도박비 마련(6.4%) 순이었다.
- 강도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17.6%, 성인범죄자의 비율은 82.4%로 나타났다.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비율은 기타를 제외한 생활비 마련, 유혹/도박비 마련, 우발적 동기가 성인범죄자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.

표 27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

(단위 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44(19.0)	174(16.0)	218(16.5)
유혹/도박비 마련	28(12.1)	56(5.1)	84(6.4)
우발적	53(22.8)	211(19.4)	264(20.0)
기타	107(46.1)	648(59.5)	755(57.2)
계	232(100.0)	1,089(100.0)	1,321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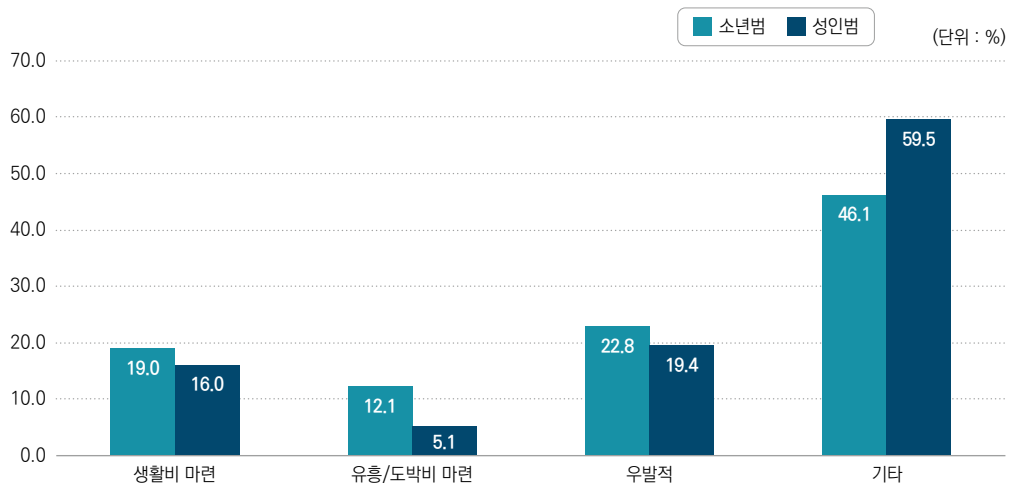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7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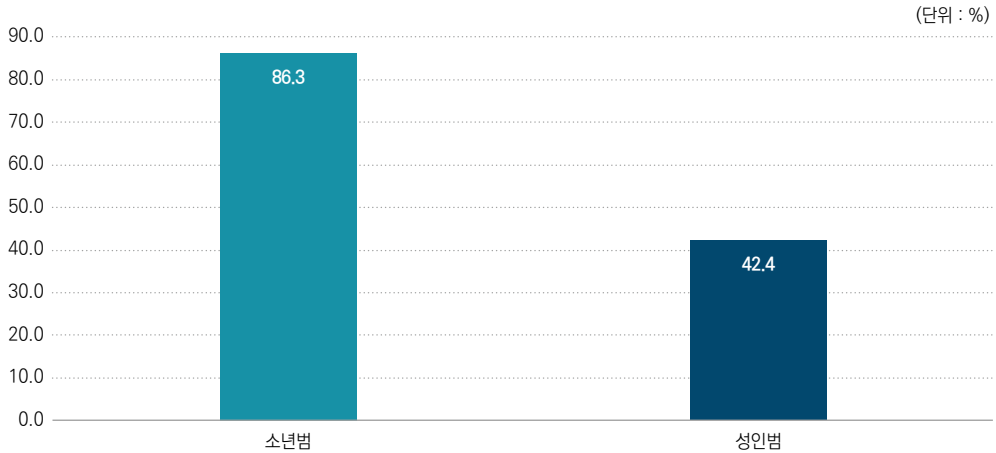
## 8) 공범 여부

- 강도범죄의 49.9%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성인범죄자의 42.4%가 공범이 있는 반면에, 소년범죄자는 86.3%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27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(단위 : 명(%))

공범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단독범	32(13.7)	656(57.6)	688(50.1)
공범	202(86.3)	483(42.4)	685(49.9)
계	234(100.0)	1,139(100.0)	1,373(100.0)



**그림 38**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### 3. 성폭력

#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17년에는 32,82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중 40.9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고, 22.2%는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51.7%가 저녁시간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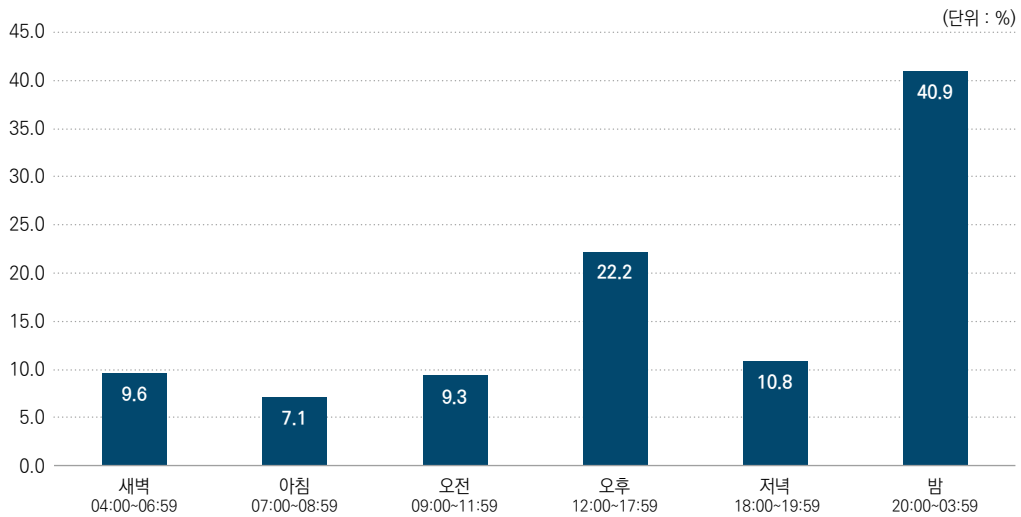


그림 39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-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(32.3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그 다음은 봄(27.1%), 가을(23.3%), 겨울(17.3%)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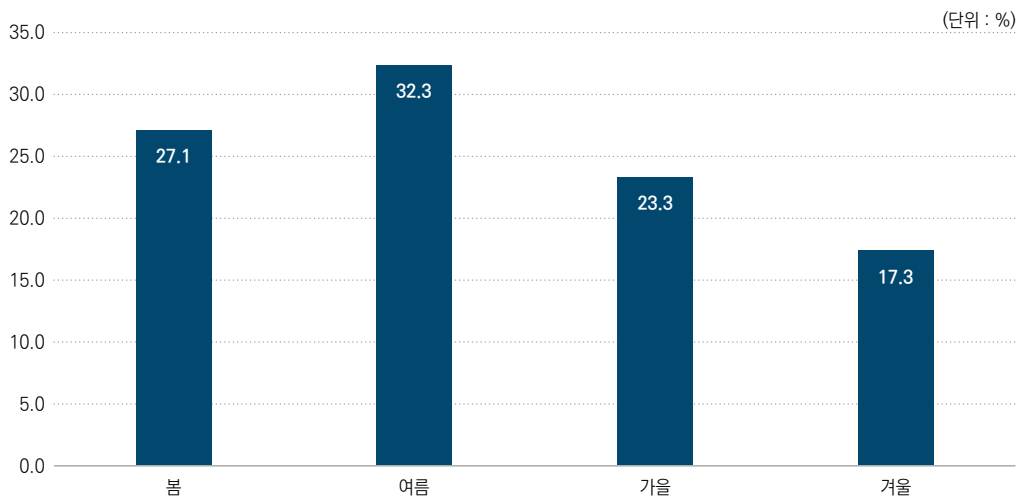


그림 40 성폭력범죄의 발생계절



## 2) 범죄발생장소

-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주거지(16.1%)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노상(13.6%), 교통수단(12.8%) 등의 순이었다. 이외에도 숙박업소 및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.1%와 7.9%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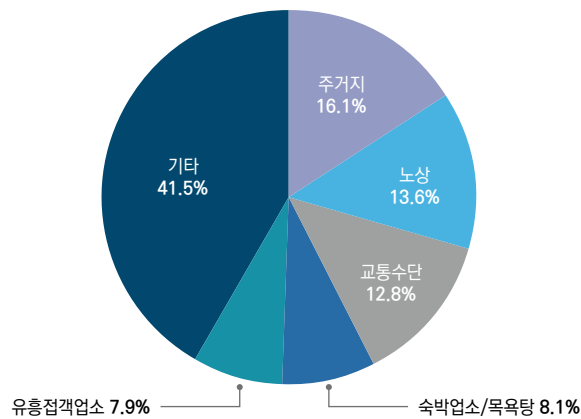


그림 41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## 3) 피해자의 연령

-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21세~30세(39.4%)가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16세~20세(21.2%), 31세~40세(12.5%) 등의 순이었다.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9.8%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고, 61세 이상의 연령층은 2.3%를 차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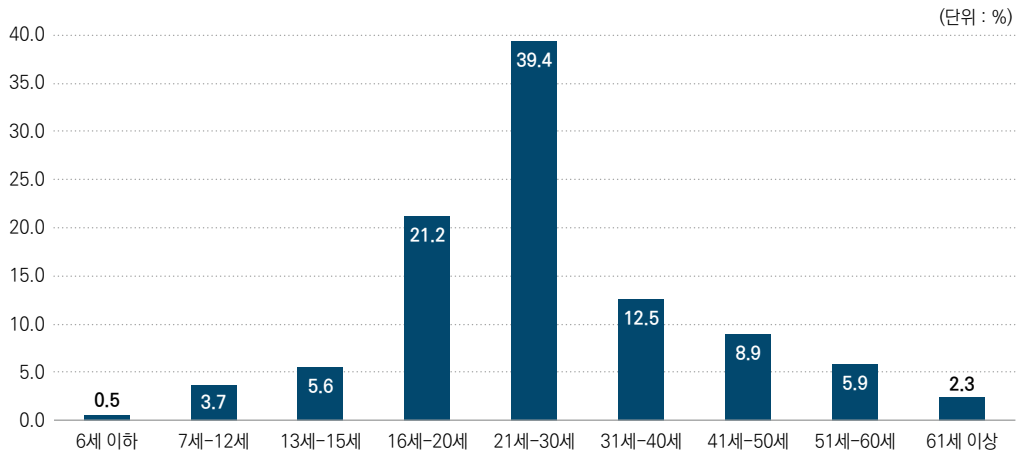


그림 4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

#### 4) 공범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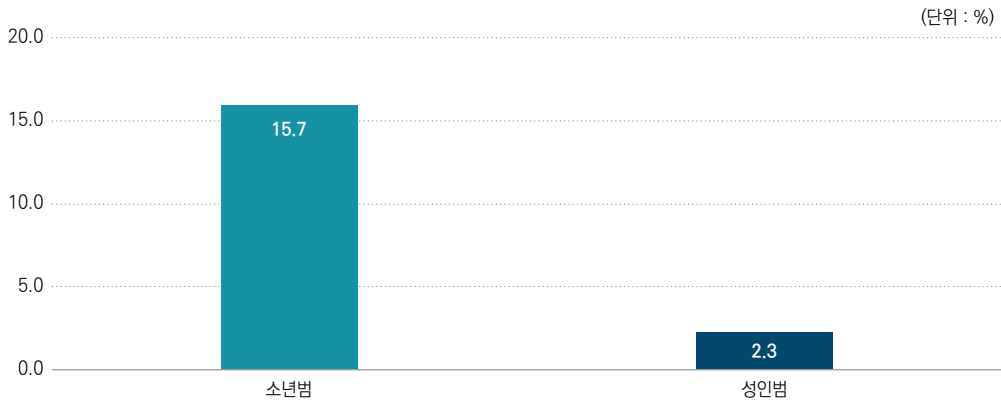
- 성폭력범죄의 96.4%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84.3%로 성인범죄자(97.7%)보다 낮고, 공범비율이 15.7%로 성인범죄자(2.3%)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29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(단위 : 명(%))

공범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단독범	2,539(84.3)	28,019(97.7)	30,558(96.4)
공범	474(15.7)	659(2.3)	1,133(3.6)
계	3,013(100.0)	28,678(100.0)	31,691(100.0)





**그림 43**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## 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, 타인이 68.7%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비율이 58.7%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, 친구 등의 비율이 23.5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**표 30**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고용관계	0(0.0)	605(2.5)	605(2.3)
친구 등	653(23.5)	1,495(6.2)	2,148(8.0)
애인	100(3.6)	968(4.0)	1,068(4.0)
친족	29(1.0)	750(3.1)	779(2.9)
이웃/지인	252(9.1)	2,275(9.5)	2,527(9.4)
타인	1,629(58.7)	16,798(69.9)	18,427(68.7)
기타	112(4.0)	1,154(4.8)	1,266(4.7)
계	2,775(100.0)	24,045(100.0)	26,82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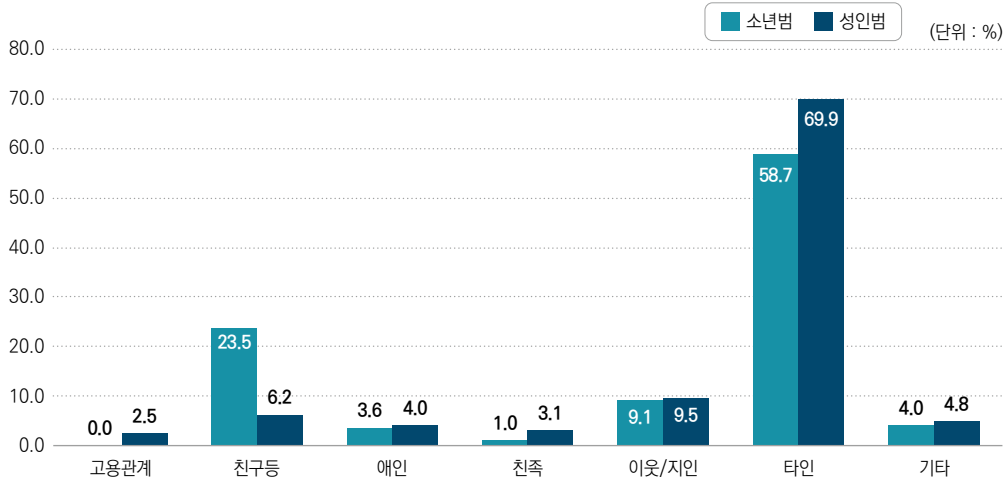


그림 44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

## 4. 방화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17년에는 총 1,358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2.4%가 밤(20:00~03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, 24.6%는 오후(12:00~17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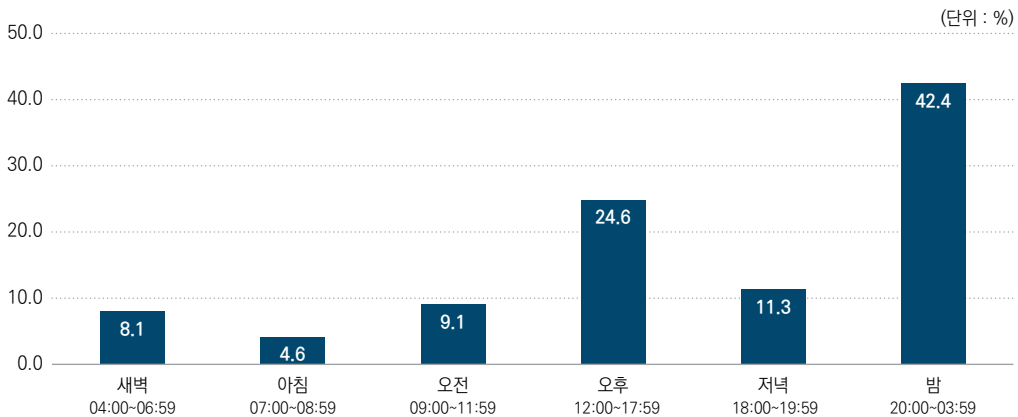


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

## 2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방화범죄자의 82.8%는 남성이었으며, 17.2%가 여성으로 나타났다.
- 검거된 방화범죄자는 51세~60세가 27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(27.3%), 31세~40세(13.8%), 19세~30세(11.3%) 등의 순이었다.
- 남성 방화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27.8%(291명)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27.8%, 290명), 31세~40세(12.9%) 등으로 나타났다.
- 여성 방화범죄자는 41세~50세와 51세~60세의 비율이 25.3%로, 각각 55명씩 동일하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이 31세~40세(18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표 31 방화범죄자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05(10.0)	13(6.0)	118(9.4)
19세~30세	114(10.9)	29(13.4)	143(11.3)
31세~40세	135(12.9)	39(18.0)	174(13.8)
41세~50세	290(27.8)	55(25.3)	345(27.3)
51세~60세	291(27.8)	55(25.3)	346(27.4)
61세 이상	110(10.5)	26(12.0)	136(10.8)
계	1,045(100.0)	217(100.0)	1,26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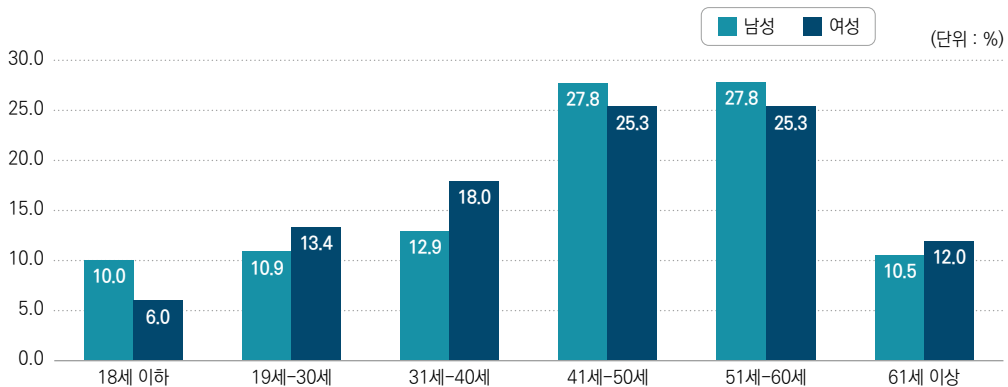


그림 46 방화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# 3) 방화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방화범죄자의 41.9%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, 45.1%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방화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3.0%였다. 여성 방화범죄자는 남성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(여성22.6%, 남성 11.0%), 남성 방화범죄자는 여성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.(남성 46.1%, 여성 40.5%)

표 32 방화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

(단위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정상	421(41.0)	85(44.3)	506(41.5)
정신장애	99(9.6)	35(18.2)	134(11.0)
주취	507(49.4)	72(37.5)	579(47.5)
계	1,027(100.0)	192(100.0)	1,219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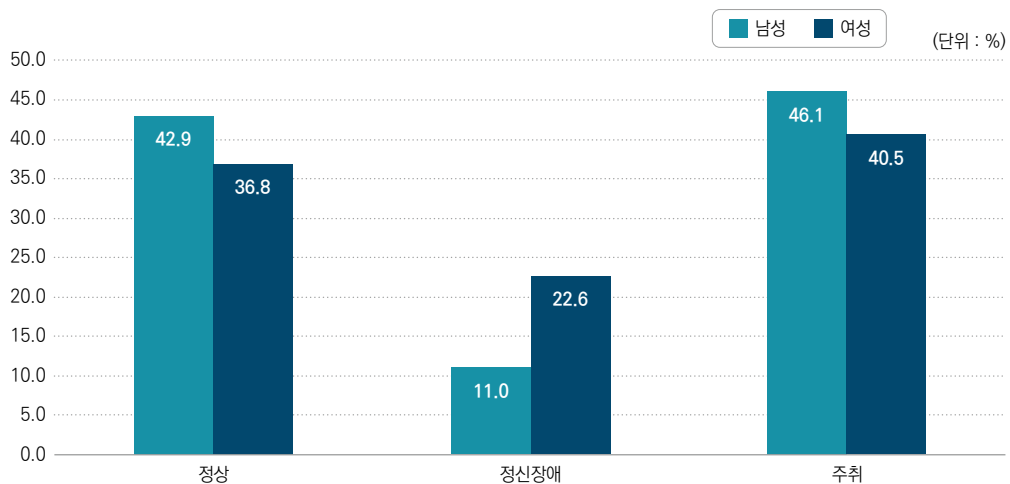


그림 47 방화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



## 5. 폭행/상해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17년 총 214,874건의 폭행/상해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51.5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대는 오후(12:00~17:59)로 18.1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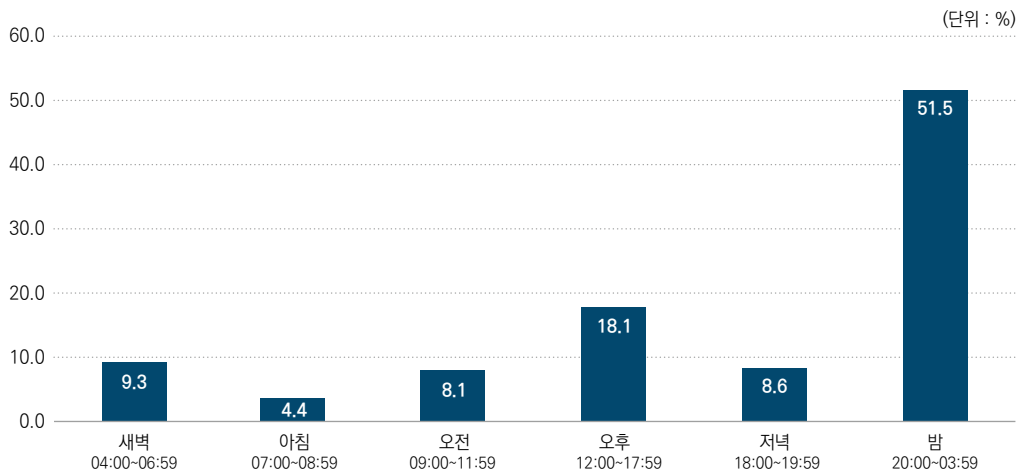


그림 48 폭행/상해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### 2) 범죄발생장소

- 폭행/상해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노상(36.3%)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(12.7%), 유흥접객업소(8.2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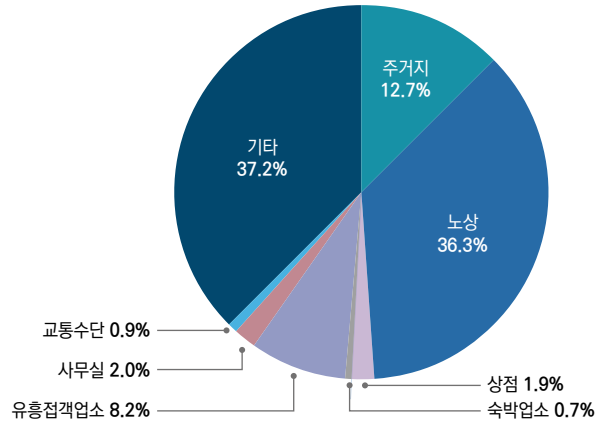


그림 49 폭행/상해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### 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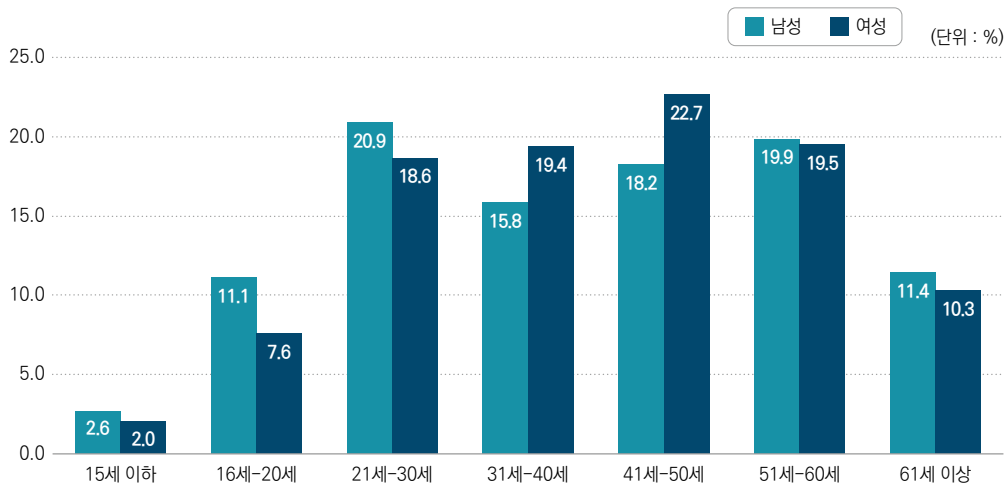
-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63.5%는 남성이고, 36.5%는 여성이다.
- 폭행/상해범죄의 피해자는 21세~30세(20.1%)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19.8%), 51세~60세(19.7%) 등의 순이다.
- 여성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31세~40세와 41세~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, 남성피해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16세~20세의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.



**표 33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**

(단위 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5세 이하	3,066(2.6)	1,339(2.0)	4,405(2.4)
16세~20세	12,931(11.1)	5,064(7.6)	17,995(9.8)
21세~30세	24,324(20.9)	12,487(18.6)	36,811(20.1)
31세~40세	18,418(15.8)	12,977(19.4)	31,395(17.1)
41세~50세	21,192(18.2)	15,170(22.7)	36,362(19.8)
51세~60세	23,121(19.9)	13,045(19.5)	36,166(19.7)
61세 이상	13,313(11.4)	6,888(10.3)	20,201(11.0)
계	116,365(100.0)	66,970(100.0)	183,335(100.0)



**그림 50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**

#### 4) 신체피해정도

- 피해자의 74.6%는 폭행/상해범죄로 인해 어떠한 신체피해도 입지 않았다. 상해를 입은 경우는 25.4%이며, 사망한 경우는 0.1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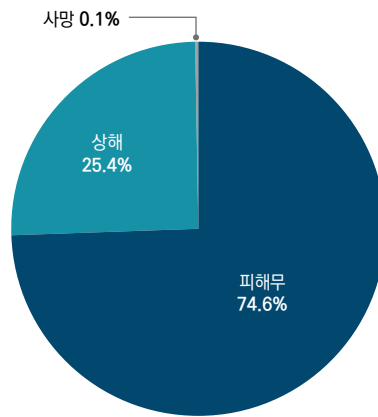


그림 51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## 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폭행/상해범죄자의 82.8%는 남성이고, 17.2%는 여성이다.
- 폭행/상해범죄자의 주된 연령층은 41세~50세(22.8%)이고, 그 다음은 19세~30세(22.0%), 51세~60세(20.7%)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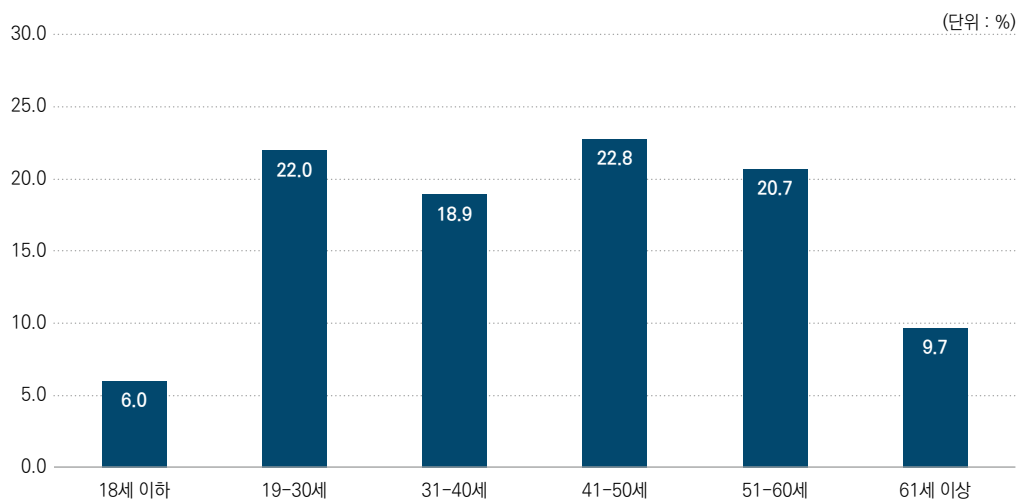


그림 52 폭행/상해범죄자의 연령별 분포





## 6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폭행/상해범죄의 57.1%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, 나머지 43.9%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.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4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0.6%), 직장동료/친구(8.5%), 애인(3.8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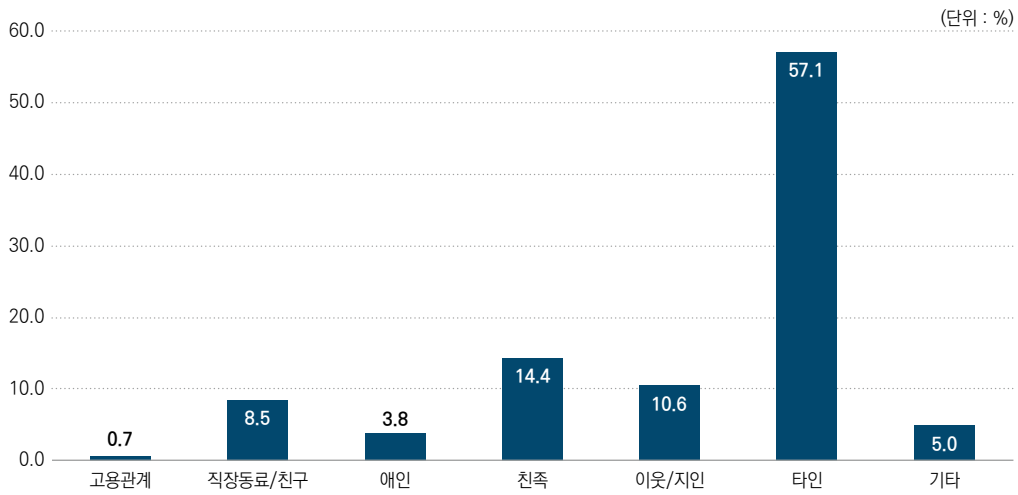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3 폭행/상해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## 6. 절도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17년 총 184,355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중 31.7%가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고, 30.7%는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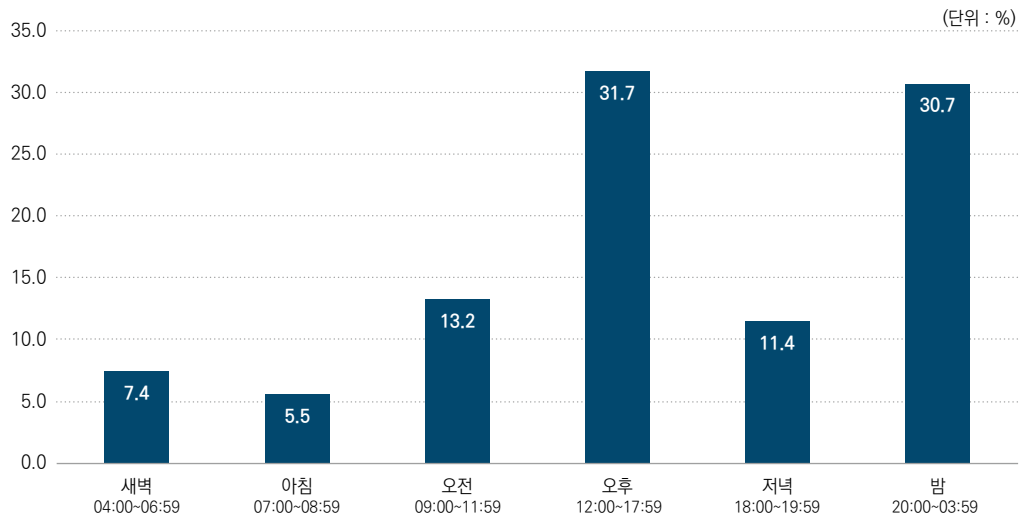


그림 54 철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## 2) 범죄발생장소

- 철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(46.4%)를 제외해보면, 노상이 20.0%로 가장 많았고, 이외에도 상점 11.9%, 주거지 8.7%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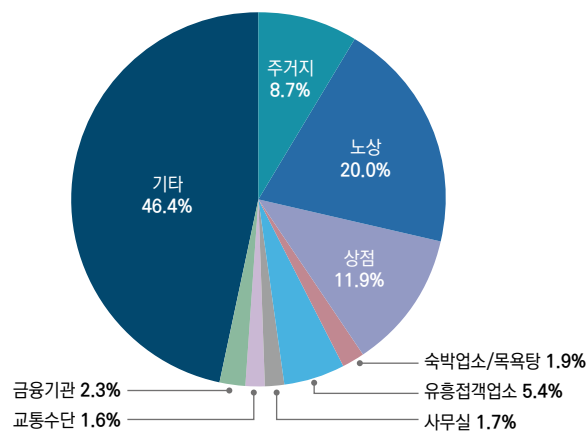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5 철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

### 3) 범행수법

-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(72.6%)를 제외해보면, 침입절도가 15.2%로 가장 많았고, 치기절도<sup>20</sup> 11.3%, 속임수절도<sup>21</sup> 1.0%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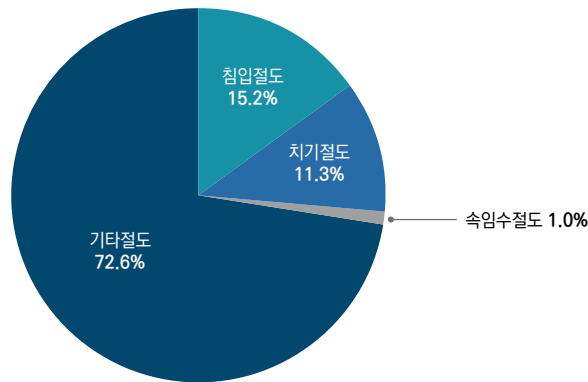


그림 56 절도범죄의 범행수법

### 4) 재산피해정도

-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49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25.8%, 100만원 초과가 15.1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4.9%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20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'소매치기', '날치기', '들치기'의 범죄수법을 의미

21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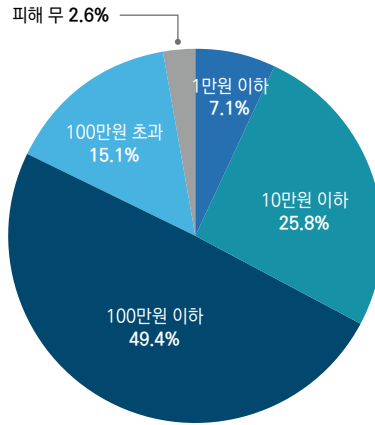


그림 57 절도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## 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절도범죄자의 76.2%가 남성이며, 23.8%가 여성이다.
- 절도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9세~30세로 전체의 20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18세 이하(18.9%), 51세~60세(16.8%) 등의 순이었다. 다른 범죄와 달리 절도범죄자는 3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.
-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대는 큰 차이를 보여, 18세 이하와 19세~3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, 41세~5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, 여성범죄자는 나이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.



표 34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7,389(21.5)	2,619(10.4)	20,008(18.9)
19세-30세	17,525(21.7)	4,141(16.4)	21,666(20.4)
31세-40세	10,957(13.6)	3,279(13.0)	14,236(13.4)
41세-50세	11,581(14.3)	4,222(16.7)	15,803(14.9)
51세-60세	12,482(15.4)	5,318(21.1)	17,800(16.8)
61세 이상	10,866(13.4)	5,666(22.4)	16,532(15.6)
계	80,800(100.0)	25,245(100.0)	106,04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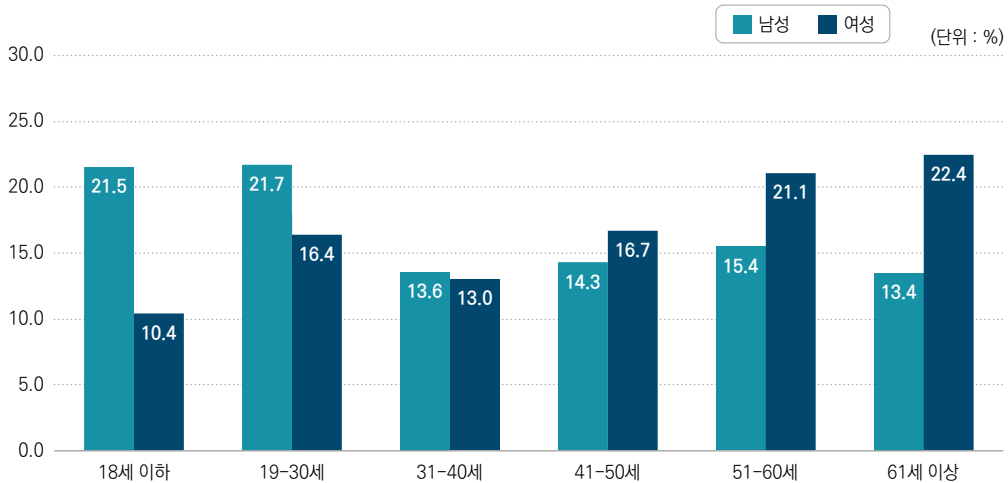


그림 58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 6) 범죄자의 전과

- 절도범죄자의 60.0%는 전과가 있었다.
- 절도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,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40.2%인 반면에,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5.0%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.

표 35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(단위 : 명(%))

전과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전과없음	11,650(59.8)	26,803(35.0)	38,453(40.0)
전과있음	7,830(40.2)	49,884(65.0)	57,714(60.0)
계	19,480(100.0)	76,687(100.0)	96,167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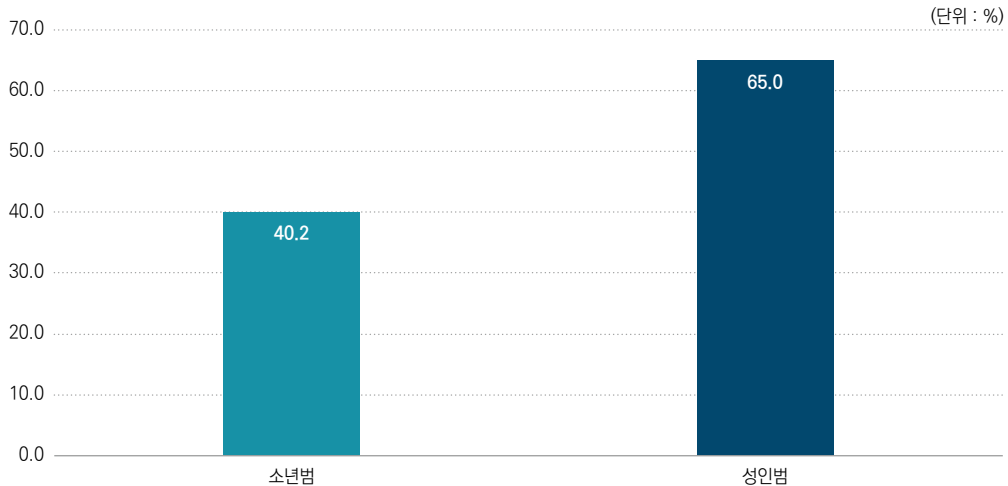


그림 59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## 7) 범행동기

-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우발적 동기가 30.8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기타이욕(19.4%), 생활비 마련(10.0%) 등의 순이다.
-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호기심/유혹(소년범 20.9%, 성인범 3.1%)에 의해서나 유흥/도박비(소년범 5.2%, 성인범 1.5%) 마련을 위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-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이욕에 해당되는 생활비 마련(6.9%), 유흥/도박비 마련(5.2%), 기타이욕(17.5%)이 29.6%를 차지함에 따라, 우발적(30.8%) 범행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 범행 원인임을 나타낸다.



표 36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

(단위 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1,343(6.9)	8,224(10.8)	9,567(10.0)
유흥/도박비 마련	1,001(5.2)	1,118(1.5)	2,119(2.2)
기타이욕	3,401(17.5)	15,149(19.8)	18,550(19.4)
호기심/유혹	4,054(20.9)	2,333(3.1)	6,387(6.7)
우발적	5,356(27.6)	24,153(31.6)	29,509(30.8)
기타	4,275(22.0)	25,423(33.3)	29,698(31.0)
계	19,430(100.0)	76,400(100.0)	95,83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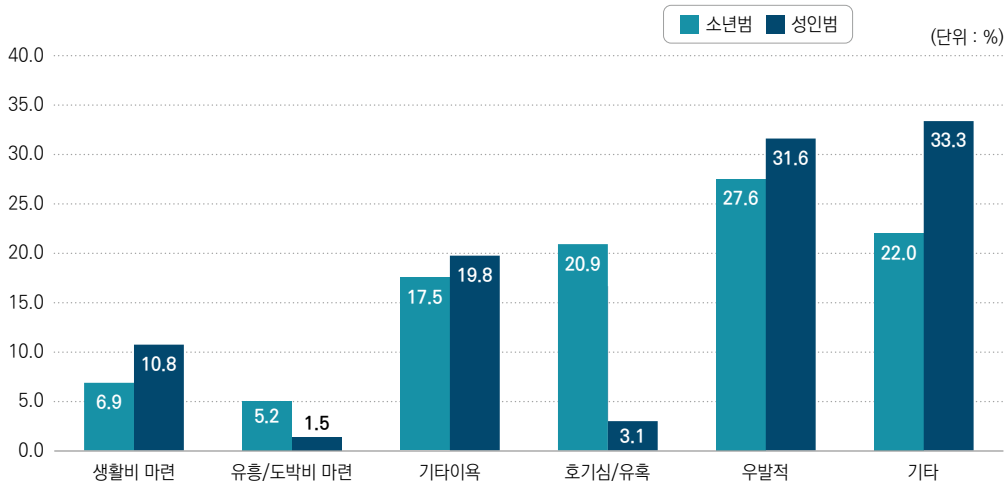


그림 60 절도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

## 7. 사기

### 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17년에는 총 241,642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.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5.6%, 여성이 34.4%였다.
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, 41세~50세가 22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다음은 31세~40세, 51세~60세가 각각 20.9%, 21세~30세가 19.3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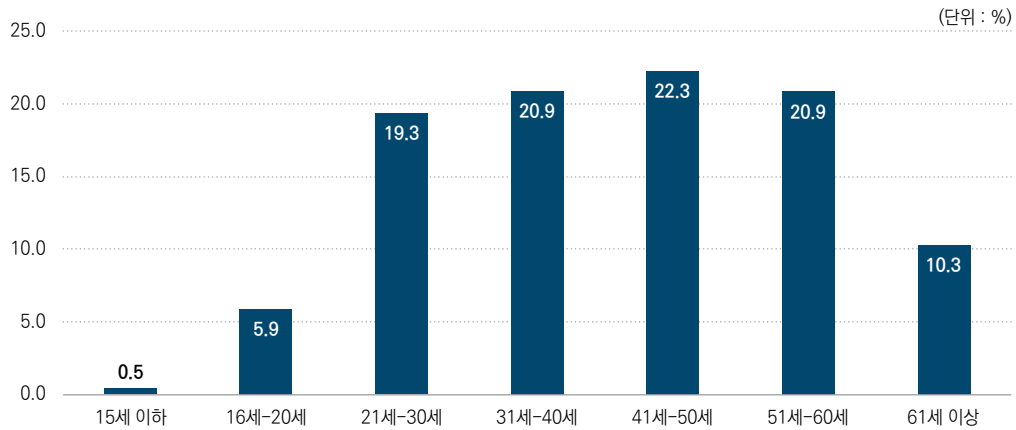


그림 61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 분포

## 2) 재산피해정도

-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를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29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00만원 초과~1,000만원 이하로 25.4%를 차지하였으며, 1,000만원 초과~1억원 이하의 비율은 22.5%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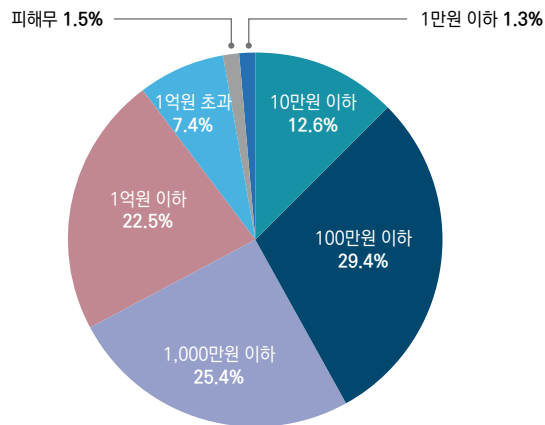


그림 62 사기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



### 3) 범행수법

- 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매매가장(23.2%)이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가짜속임(16.8%), 차용사기(10.3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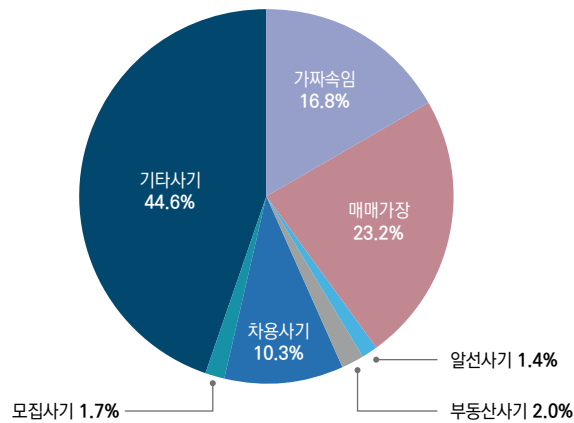


그림 63 사기범죄의 범행수법

### 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사기범죄자의 77.9%는 남성이고, 22.1%는 여성이다.
- 검거된 사기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, 41세~50세가 26.1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(24.7%), 31세~40세(18.5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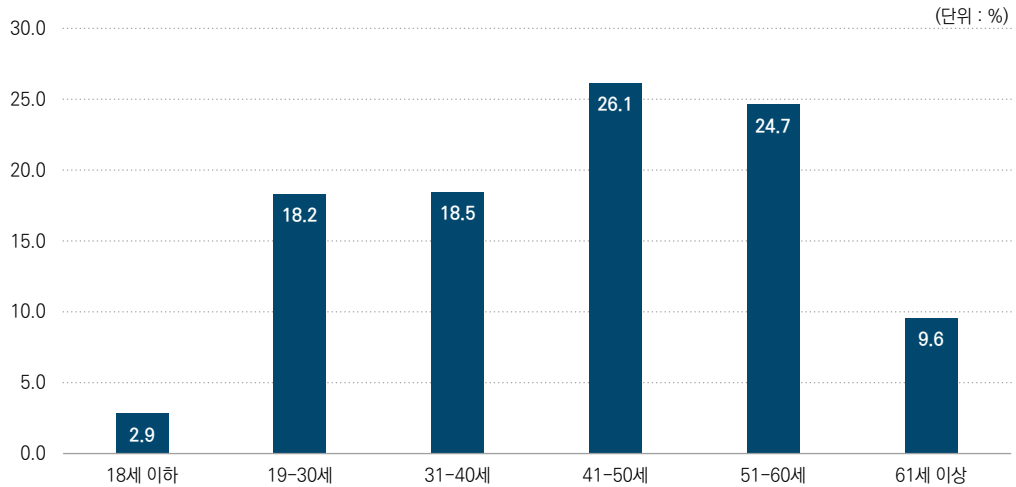


그림 64 사기범죄자의 연령 분포

## 8. 교통범죄

### 1) 범죄발생건수

- 2017년에는 총 529,950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중 교통사고 범죄는 252,383건으로 교통범죄의 47.6%에 해당되며,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는 277,567건으로 52.4%에 해당된다.

### 2) 범죄발생시간

- 교통범죄가 가장 빈발하는 시간대는 밤(20:00~03:59)(38.8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범죄발생시간은 교통범죄 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교통사고 범죄는 오후 시간대(33.0%)와 밤 시간대(24.4%)에 많이 발생한 반면에, 기타 교통범죄는 53.1%가 밤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

표 37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

(단위 : 건(%))

범죄발생시간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새벽 04:00~06:59	13,983(5.7)	19,852(8.1)	33,835(6.9)
아침 07:00~08:59	22,367(9.1)	12,742(5.2)	35,109(7.2)
오전 09:00~11:59	34,712(14.2)	25,412(10.3)	60,124(12.3)
오후 12:00~17:59	80,784(33.0)	43,613(17.7)	124,397(25.4)
저녁 18:00~19:59	33,082(13.5)	13,577(5.5)	46,659(9.5)
밤 20:00~03:59	59,631(24.4)	130,543(53.1)	190,174(38.8)
계	244,559(100.0)	245,739(100.0)	490,29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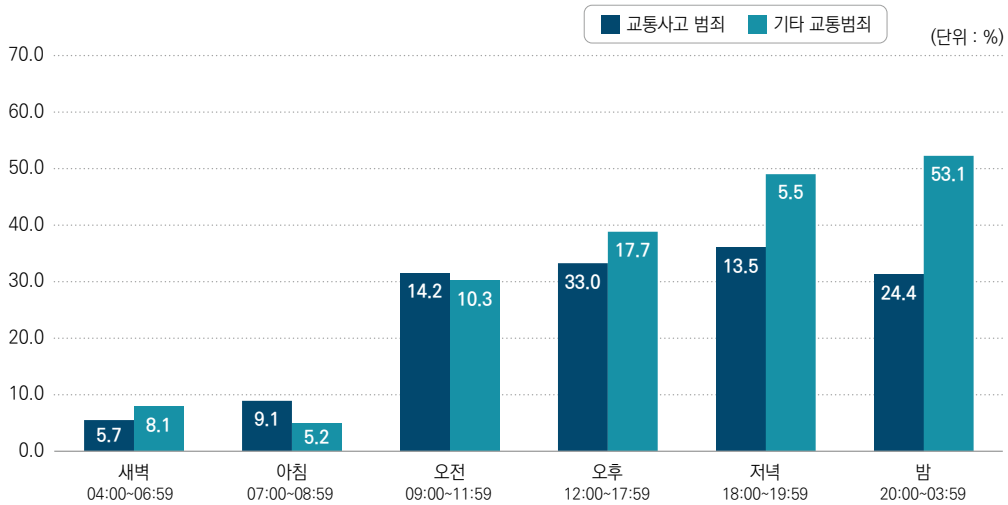


그림 65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

### 3) 범죄발생지역

- 2017년 교통사고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(27.0%)였고,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(13.7%)였다. 반면에 울산광역시(1.5%)는 16개 시도<sup>22</sup> 중 교통사고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.

22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발생건수와 구성 비율이 매우 낮아 충청남도에 포함하여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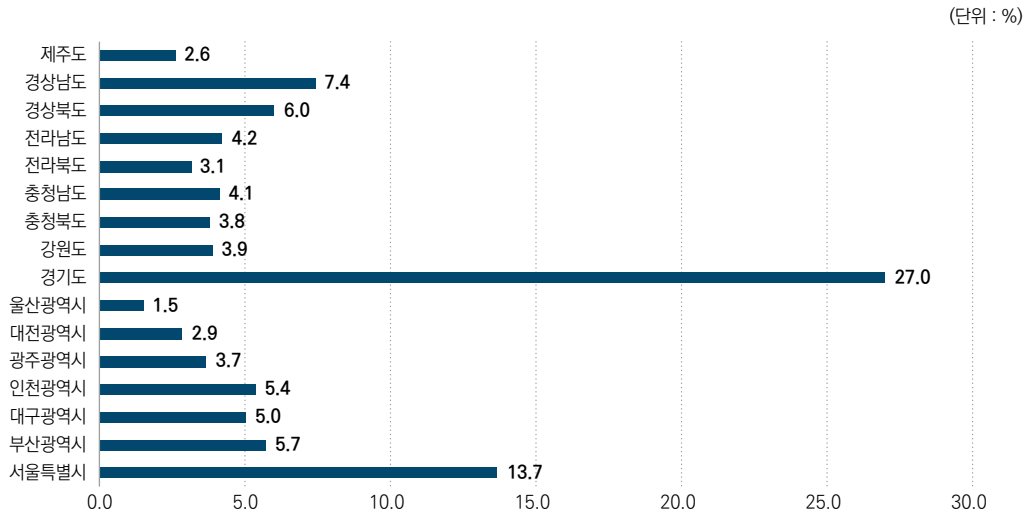


그림 66 지역별 교통사고 범죄 발생비율

-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경기도(28.0%)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(12.4%)였다. 울산광역시(1.6%)는 교통사고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도 가장 적었으며, 그 다음은 제주도(2.6%)와 대전광역시(2.6%), 전라북도(3.0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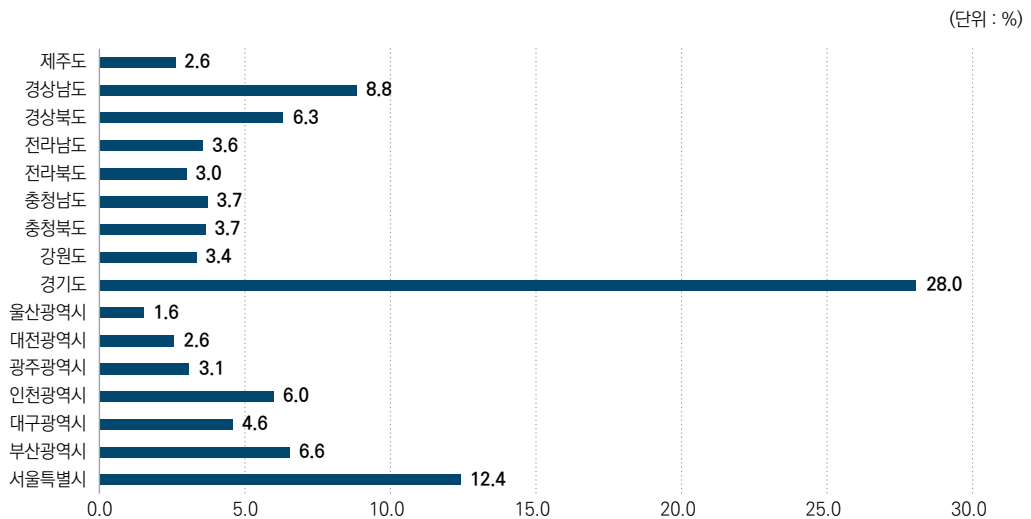


그림 67 지역별 기타 교통범죄 발생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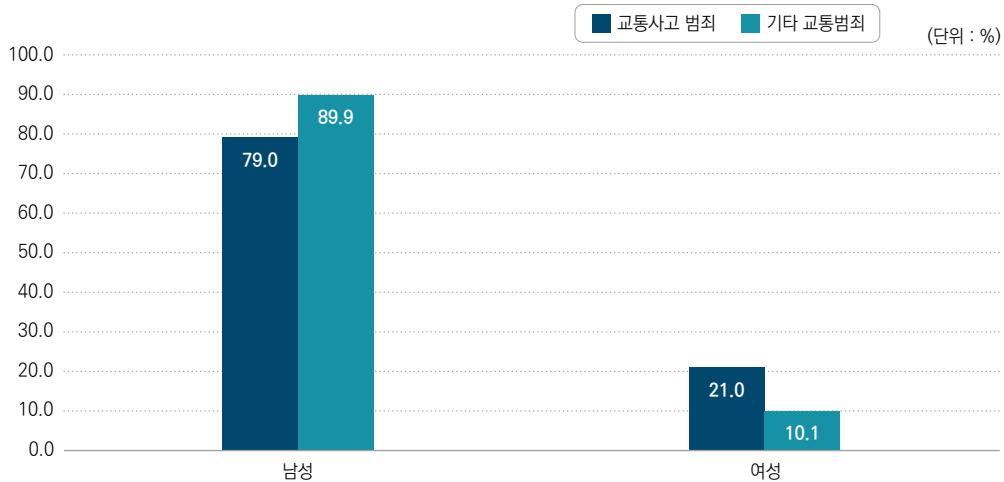
#### 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교통범죄자의 85.0%는 남성이었으며, 15.0%는 여성이었다. 남성 교통범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범죄(79.0%) 보다 기타 교통범죄(89.9%)의 비율이 여성 교통범죄자보다 높은 반면, 여성 교통범죄자는 교통사고 범죄(21.0%)가 기타 교통범죄(10.1%)의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**표 38** 교통범죄자의 성별 발생비율

(단위: 명(%))

범죄자 성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남성	183,201(79.0)	252,463(89.9)	435,664(85.0)
여성	48,749(21.0)	28,226(10.1)	76,975(15.0)
계	231,950(100.0)	280,689(100.0)	512,639(100.0)



**그림 68** 교통범죄 성별 발생비율

## 5) 범죄자의 연령

- 교통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41세~50세로 전체의 24.3%를 차지하고 있다. 그 다음으로 51세~60세의 연령대는 22.4%, 31세~40세는 21.6%를 차지하고 있다. 교통범죄 유형별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, 50세 이하는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고, 51세 이상은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39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자 연령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18세 이하	3,545(1.5)	6,081(2.2)	9,626(1.9)
19세~30세	34,583(14.9)	53,591(19.1)	88,174(17.2)
31세~40세	38,595(16.6)	71,997(25.7)	110,592(21.6)
41세~50세	50,332(21.7)	74,146(26.5)	124,478(24.3)
51세~60세	60,295(26.0)	54,394(19.4)	114,689(22.4)
61세 이상	44,459(19.2)	19,980(7.1)	64,439(12.6)
계	231,809(100.0)	280,189(100.0)	511,99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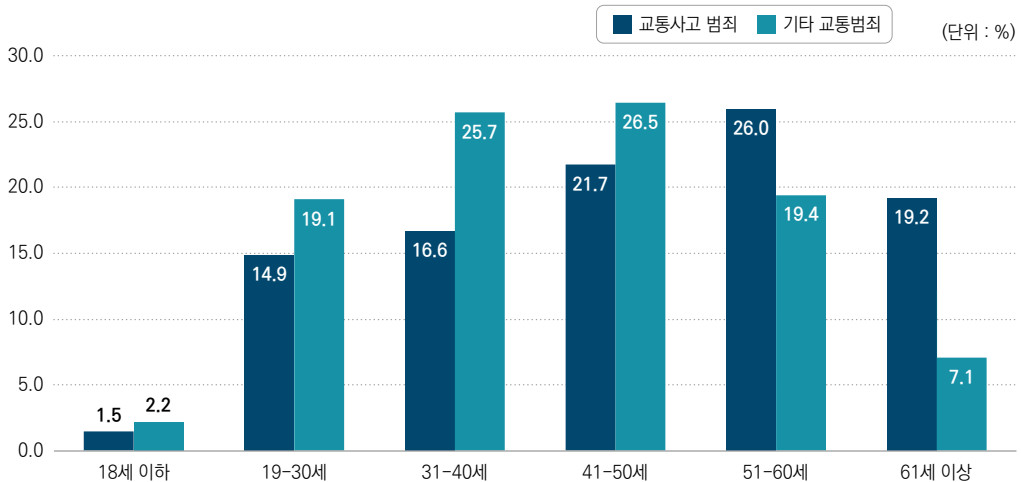


그림 69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자 연령 분포



## 9.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

### 가. 아동유괴<sup>23</sup>

#### 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17년에는 총 216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55.6%에 해당하는 120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다.
- 아동유괴 피해자의 40.8%가 남자아동이고, 59.2%가 여자아동으로 여자아동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.

#### 2) 범죄발생시간

-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(12:00~17:59)로 전체범죄의 48.6%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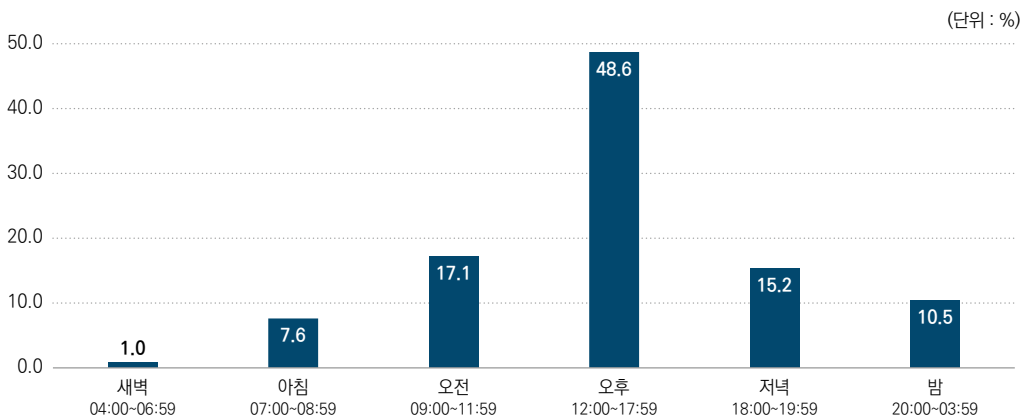


그림 70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3 아동유괴란 형법의 약취유인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범죄를 의미

### 3) 범죄발생장소

- 아동유괴범죄의 42.5%(51건)가 기타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, 그 외 노상(50건, 41.7%) 주거지(19건, 15.8%)에서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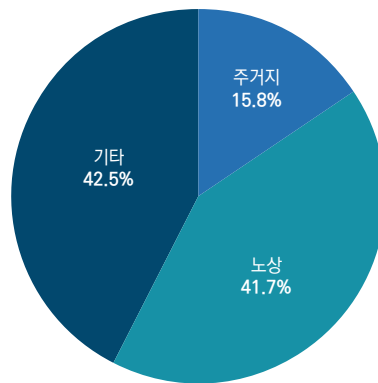


그림 71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### 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아동유괴범죄자의 67.6%(69명)가 남성이며, 32.4%(33명)가 여성이었다.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- 아동유괴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41세~50세(24.8%)이며, 그 다음은 61세 이상(20.8%), 19세~30세(19.8%) 등의 순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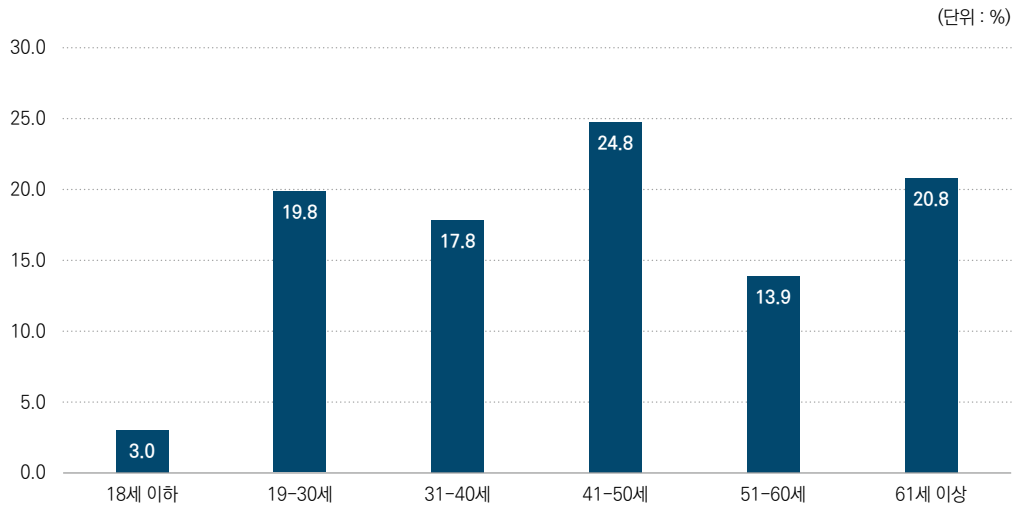


그림 72 아동유괴범죄자의 연령 분포

## 5) 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유형

- 아동유괴범죄자의 38.7%가 검거되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. 그리고 이전에 아동유괴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동종재범자는 3.2%(2명)로 나타났다.

## 6) 공범 여부

- 아동유괴범죄자의 83.5%(76명)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. 공범 중 11.0%(10명)가 친인척이었다.

## 7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아동유괴범죄자와 피해자가 타인인 경우(67.7%)가 지인관계인 경우(32.3%) 보다 많았다. 지인관계인 경우에는 대부분 친족관계(25.8%)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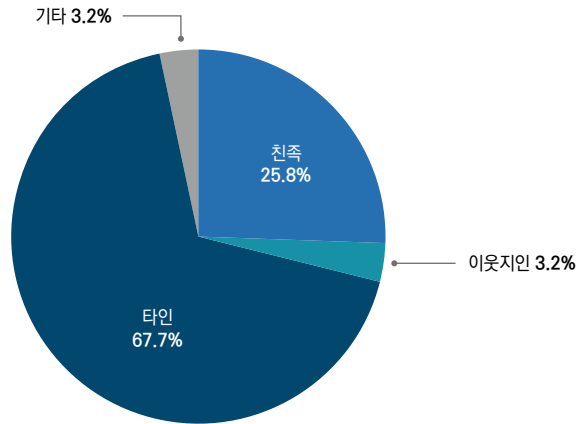


그림 73 아동유괴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## 나. 아동성폭력

### 1) 범죄발생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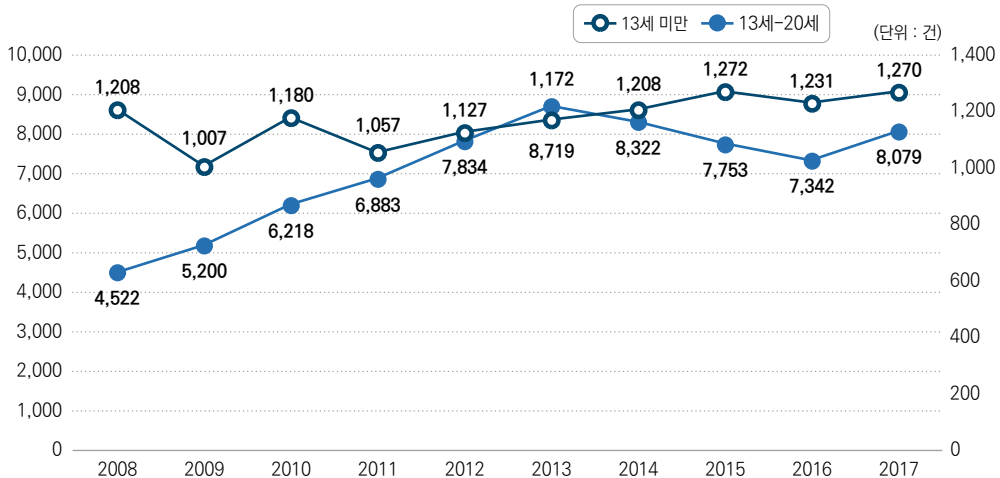
- 2017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,270건이었다.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 이후 대체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. 지난 10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5.1% 증가하였다.
- 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,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. 지난 10년 동안 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78.7%나 증가하였다.
- 지난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모두 증가하였으나, 상대적으로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

**표 40**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(2008년~2017년)

(단위 : 건, %)

연도	발생건수			증감률	
	13세 미만	13세-20세	계	13세 미만	13세-20세
2008	1,208	4,522	5,730	-	-
2009	1,007	5,200	6,207	-16.6	15.0
2010	1,180	6,218	7,398	-2.3	37.5
2011	1,057	6,883	7,940	-12.5	52.2
2012	1,127	7,834	8,961	-6.7	73.2
2013	1,172	8,719	9,891	-3.0	92.8
2014	1,208	8,322	9,530	0.0	84.0
2015	1,272	7,753	9,025	5.3	71.5
2016	1,231	7,342	8,573	1.9	62.4
2017	1,270	8,079	9,349	5.1	78.7



**그림 74**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(2008년~2017년)

## 2) 성폭력범죄 유형

-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, 강제추행이 76.9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강간/간음으로 14.6%를 차지하였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(51.6%)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,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의 14.2%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- 전체적으로 13세 미만과 13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이 55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은 강간/간음(20.6%), 카메라 등 이용촬영(12.6%) 등의 순이다.

표 41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유형

(단위 : 건(%))

성폭력 유형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강간/간음	185(14.6)	1,740(21.5)	1,925(20.6)
강제추행	977(76.9)	4,171(51.6)	5,148(55.1)
강간등	19(1.5)	94(1.2)	113(1.2)
강간등살인/치사/상해/치상	6(0.5)	97(1.2)	103(1.1)
특수강도강간등	0(0.0)	10(0.1)	10(0.1)
카메라등 이용촬영	29(2.3)	1,145(14.2)	1,174(12.6)
성적목적의 장소침입	3(0.2)	38(0.5)	41(0.4)
통신매체 이용음란	48(3.8)	391(4.8)	439(4.7)
공중밀집장소 추행	3(0.2)	393(4.9)	396(4.2)
계	1,270(100.0)	8,079(100.0)	9,349(100.0)

## 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86.4%가 여성아동이다. 아동피해자 중 13.6%가 남자아동이었는데, 이는 13세~20세 연령층 피해자의 경우 남자피해자가 5.2%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.



표 4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비율

(단위 : 건(%))

피해자 성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남성	149(12.1)	413(5.6)	562(6.6)
여성	1,080(87.9)	6,906(94.4)	7,986(93.4)
계	1,229(100.0)	7,319(100.0)	8,54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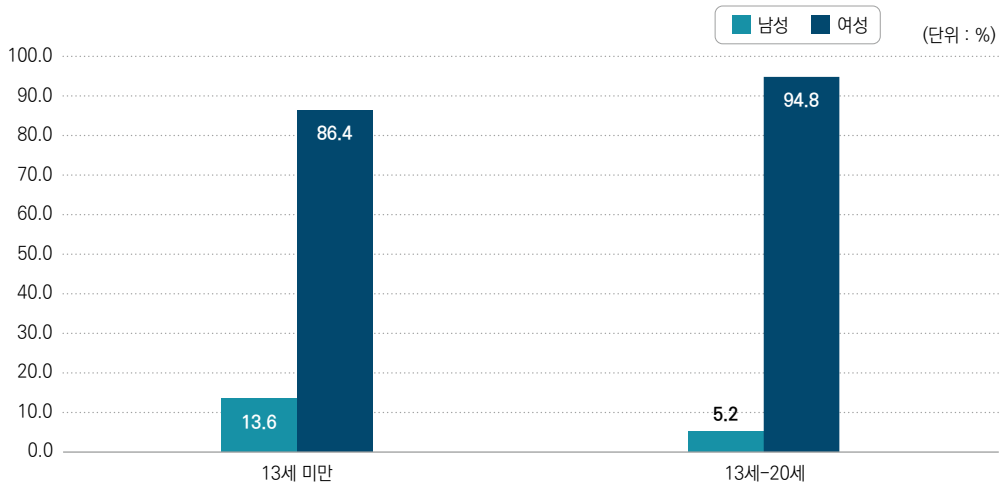


그림 75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비율

#### 4) 범죄발생시간

-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(12:00~17:59, 51.4%)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13세~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(20:00~03:59, 41.6%)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는 점과 대비된다.

표 43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(단위 : 건(%))

범죄발생시간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새벽 04:00~06:59	19(1.9)	705(10.6)	724(9.5)
아침 07:00~08:59	44(4.5)	443(6.7)	487(6.4)
오전 09:00~11:59	101(10.3)	521(7.8)	622(8.2)
오후 12:00~17:59	505(51.4)	1,494(22.5)	1,999(26.2)
저녁 18:00~19:59	156(15.9)	716(10.8)	872(11.4)
밤 20:00~03:59	158(16.1)	2,761(41.6)	2,919(38.3)
계	983(100.0)	6,640(100.0)	7,623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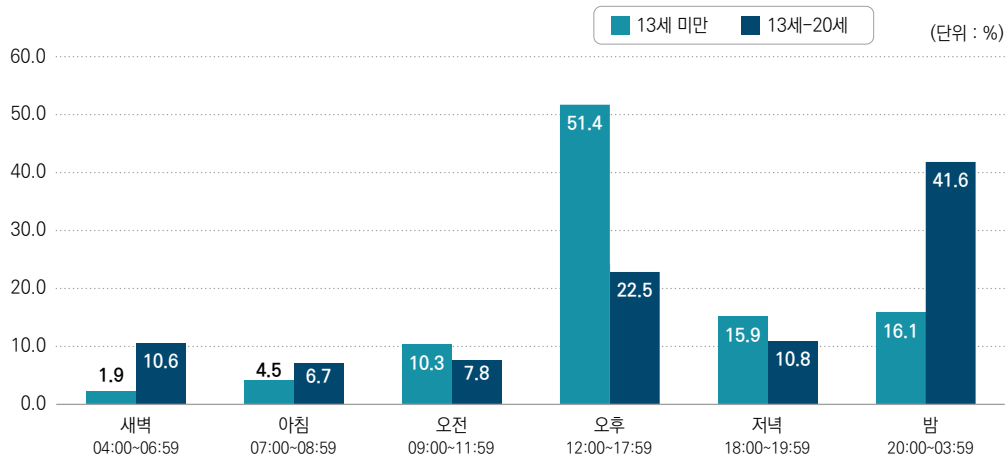


그림 76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## 5) 범죄발생장소

- 범죄발생장소 중 기타를 제외하고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지(31.0%)이며, 그 다음은 노상(18.3%) 등의 순이었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(19.8%)이며, 그 다음은 노상(15.0%), 숙박/유흥업소(14.6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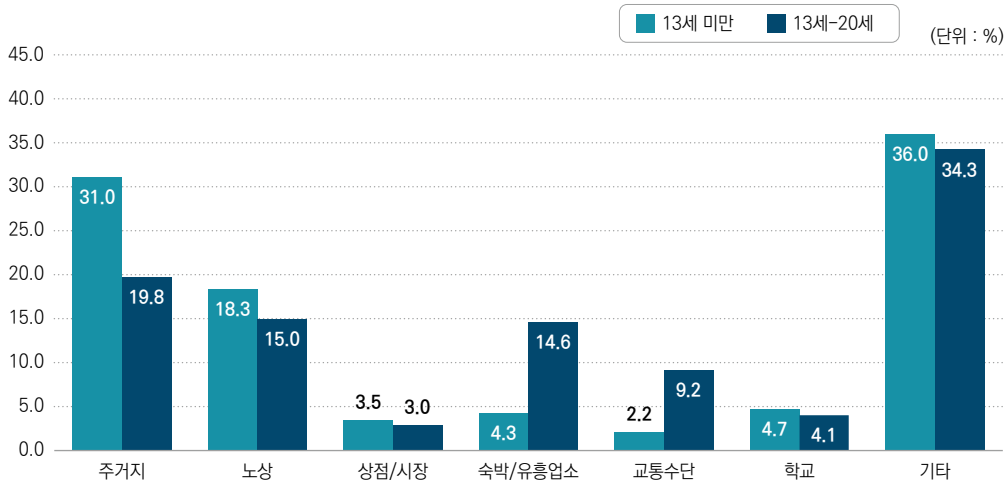


-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**표 44**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(단위 : 건(%))

범죄발생장소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주거지	394(31.0)	1,601(19.8)	1,995(21.3)
노상	233(18.3)	1,213(15.0)	1,446(15.5)
상점/시장	44(3.5)	241(3.0)	285(3.0)
숙박/유흥업소	54(4.3)	1,180(14.6)	1,234(13.2)
교통수단	28(2.2)	744(9.2)	772(8.3)
학교	60(4.7)	328(4.1)	388(4.2)
기타	457(36.0)	2,772(34.3)	3,229(34.5)
계	1,270(100.0)	8,079(100.0)	9,349(100.0)



**그림 77**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## 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7.6%는 남성이고, 여성은 2.4%에 불과하였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51세~60세로 19.4%를 차지하고 있다. 그 다음은 61세 이상(17.4%), 41세~50세(17.3%) 등의 순이었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표 45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18세 이하	184(16.5)	1,541(21.1)	1,725(20.5)
19세~30세	183(16.4)	2,589(35.4)	2,772(32.9)
31세~40세	143(12.8)	1,155(15.8)	1,298(15.4)
41세~50세	193(17.3)	992(13.6)	1,185(14.1)
51세~60세	216(19.4)	648(8.9)	864(10.3)
61세 이상	194(17.4)	391(5.3)	585(6.9)
계	1,113(100.0)	7,316(100.0)	8,429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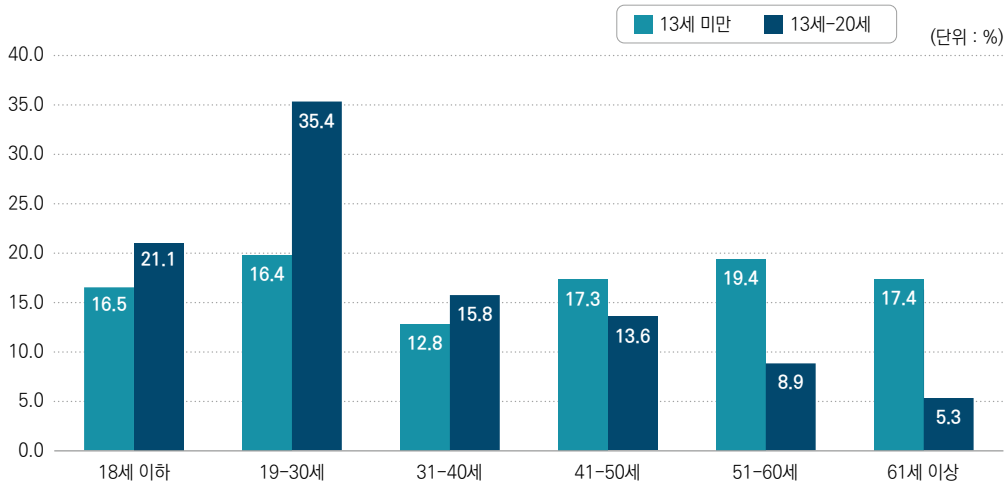


그림 7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령 분포

## 7) 범죄자의 전과 및 동종재범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3.4%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재범자 중 12.8%가 이전에 성폭력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동종재범자로 나타났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전과 비율(13세 미만 53.4% / 13~20세 45.9%)이나 동종재범 비율(13세 미만 12.8% / 13세~20세 13.2%)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.

## 8) 범행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66.2%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9.6%이며,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.2%이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낮은 반면에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.

표 46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(단위 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정상	715(72.1)	4,116(65.3)	4,831(66.2)
정신장애	113(11.4)	194(3.1)	307(4.2)
주취	164(16.5)	1,996(31.7)	2,160(29.6)
계	992(100.0)	6,306(100.0)	7,29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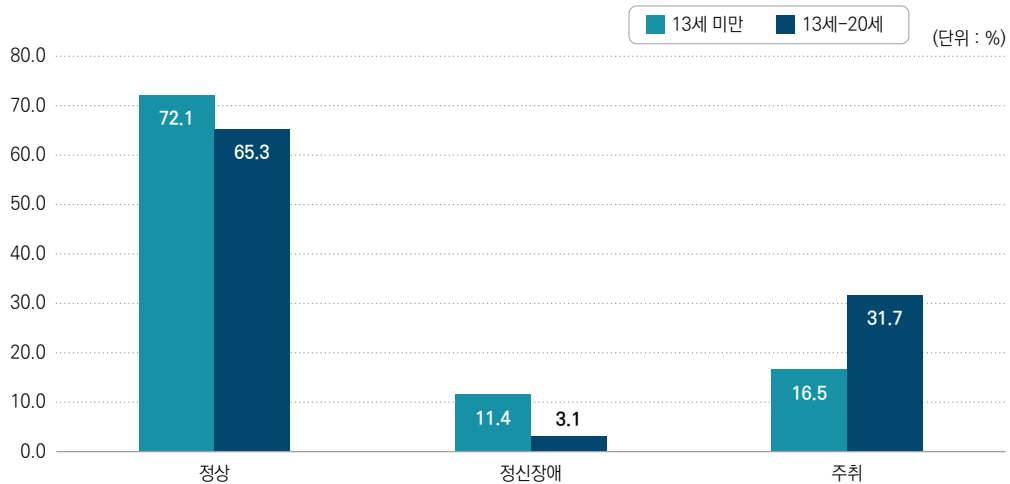


그림 79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## 9) 공범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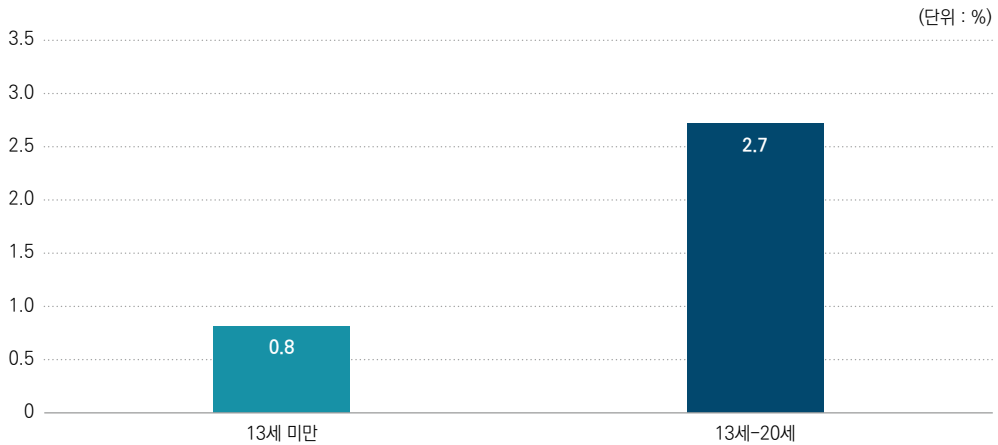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9.2%가 단독범이었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도 97.3%가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공범 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다.



**표 47**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공범비율

(단위 : 명(%))

공범 여부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단독범	1,096(99.2)	7,040(97.3)	8,136(97.5)
공범	9(0.8)	196(2.7)	205(2.5)
계	1,105(100.0)	7,236(100.0)	8,341(100.0)



**그림 80**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공범비율

## 10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63.7%가 타인이었다. 그 다음으로 이웃/지인(16.7%), 친족(14.2%) 등의 순이었다.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/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.

표 4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-20세	
친구/직장동료	4(0.4)	727(11.5)	731(10.0)
애인	7(0.7)	181(2.9)	188(2.6)
친족	141(14.2)	254(4.0)	395(5.4)
이웃/지인	166(16.7)	512(8.1)	678(9.3)
타인	632(63.7)	4,212(66.8)	4,844(66.4)
기타	42(4.2)	418(6.6)	460(6.3)
계	992(100.0)	6,304(100.0)	7,296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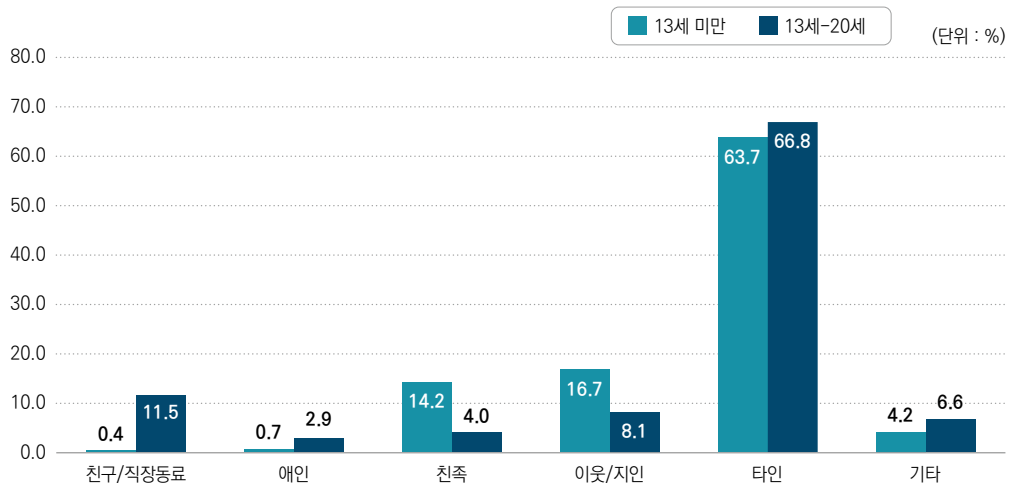


그림 81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# 범 죄 통 계 표



